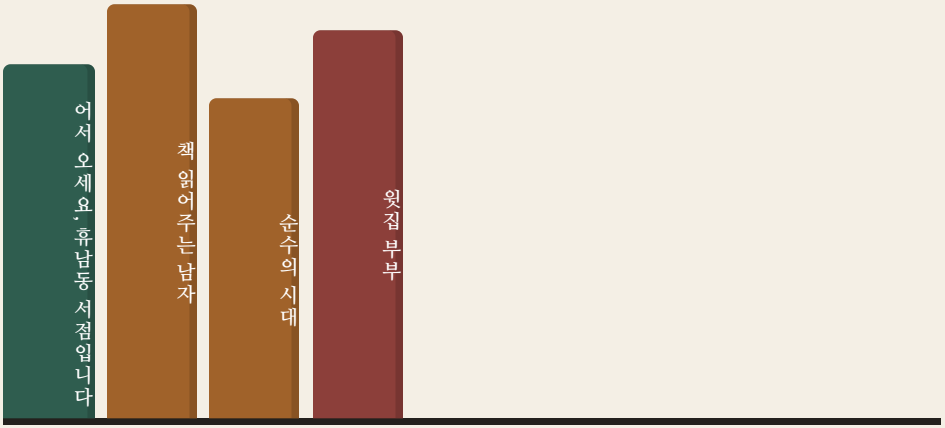
생각의 지도 06 · 사랑과 관계

곁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아는가

덜 벌더라도, 나답게 사는 시간, 무지는 죄를 덜어 줄까, 순수는 누구의 것이었을까, 이웃은 어디까지일까. 책미사가 4번의 모임에서 이 질문을 두고 나눈 이야기를 한 권에 묶었습니다.



책 4권 · 질문 14개 · 2022.5.7 ~ 2026.8.29

무료 · 함께 나눠 주세요

4번의 모임, 하나의 질문

모임 날짜 순서로 놓았습니다. 후기 제목이 곧 그날 붙든 물음입니다.

01 덜 벌더라도, 나답게 사는 시간 3
『어서 오세요, 휴남동 서점입니다』 · 2022.5.7 지정독서

02 무지는 죄를 덜어 줄까 4
『책 읽어주는 남자』 · 2023.2.25 오프모임

03 순수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5
『순수의 시대』 · 2025.5.10 오프모임

04 이웃은 어디까지일까 6
『윗집 부부』 · 2026.8.29 문학산책

이렇게 써 보세요. 혼자라면 쪽마다 맨 아래 질문 하나에 세 줄로 답해 보기. 여럿이라면 질문 하나를 골라 20분 이야기하기. 독서모임 첫 질문으로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.



지정독서 · 2022년 5월 7일

덜 벌더라도, 나답게 사는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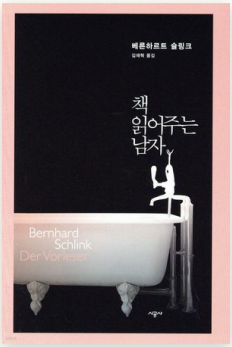
황보름 『어서 오세요, 휴남동 서점입니다』

황보름의 『어서 오세요, 휴남동 서점입니다』로 5월 정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. 영주와 민준이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에서 시작해 삶의 균형, 명상, 마음을 전하는 법까지, 토요일 아침 두 시간이 넘게 이어진 따뜻한 모임이었습니다.

소설은 왜 필요할까	내 정서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로
영주와 민준	덜 벌더라도 나를 찾는 삶
균형과 루틴	하나라도 더, 그러나 지치지 않게
생각을 쉬게 하는 것	명상, 그리고 화가 날 때의 거리 두기

이 책으로 던질 질문

1. 나는 왜 소설과 멀어졌다가, 왜 다시 읽게 되었을까?
2. 돈을 덜 벌더라도 시간이 여유로운 삶, 나는 고를 수 있을까?
3.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, 나는 무엇으로 마음을 쉬게 할까?



오프모임 · 2023년 2월 25일

무지는 죄를 덜어 줄까

베른하르트 슐링크 『책 읽어주는 남자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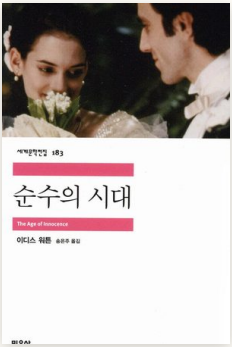
베른하르트 슐링크의 『책 읽어주는 남자』를 들고 겨울 끝자락 토요일 오후에 직접 만났습니다. 각자 꼽은 최고의 장면에서 시작해 한나의 무지와 죄, 법정에서 침묵한 미하엘의 선택, 그 시대를 산 세대의 책임, 그리고 끝내 엇갈린 두 사람의 사랑까지 이야기했습니다.

최고의 장면	앓듯이 시작된 사랑, 녹음테이프로 이어진 사랑
무지와 죄	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다 풀리지 않는다
미하엘의 침묵	알고도 말하지 않은 선택
그 시대라면 나는	세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

> "그때는 어쩔 수 없이 휩쓸렸다 해도,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."
>
> 그날 모임에서 나온 말

이 책으로 던질 질문

1. 배우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인가?
2. 알고도 말하지 않은 미하엘의 침묵,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?
3. 그 시대를 살았다면 나도 같은 행동을 했을까? 모두가 그랬다면 잘못이 아닌 걸까?



오프모임 · 2025년 5월 10일

순수는 누구의 것이었을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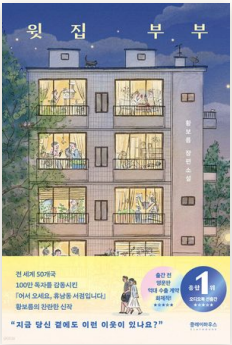
이디스 워튼 『순수의 시대』

이디스 워튼의 『순수의 시대』를 들고 봄날 오후에 직접 만났습니다. 1870년대 뉴욕 상류층의 사랑과 결혼을 두고, 메이와 엘렌, 그리고 끝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아처를 자리를 옮겨 가며 세 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.

메이	순진한 아내일까, 모든 걸 얻어 낸 전략가일까
엘렌	사랑보다 자유를 택했을까
결혼	사랑만으로는 하지 않는 것
순수	계산하지 않던 시절의 마음, 혹은 환경 따라 변하는 것

이 책으로 던질 질문

1. 메이는 순진한 아내였을까, 모든 걸 얻어 낸 전략가였을까?
2.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걸까?
3. 순수란 계산하지 않던 마음일까,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일까?



문학산책 · 2026년 8월 29일

이웃은 어디까지일까

황보름 『윗집 부부』

황보름의 『윗집 부부』를 두고, 책 밖의 이웃과 결혼, 세대 이야기로 두 시간 넘게 이어진 밤. 가벼운 소설이라 생각했는데 저마다의 삶이 가장 많이 묻어난 모임이었습니다.

인사 한 번 없는 옆집	이웃은 담 하나 너머일까, 마음 가까이일까
결혼, 해야 할까	세대마다 다른 대답
우리에서 나로	코로나 뒤 달라진 관계
사람을 대하는 얼굴	고뇌가 쌓인 만큼 남의 삶이 읽힌다

> "이웃은 물리적인 이웃이 아니라, 책미사 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."
>
> 그날 모임에서 나온 말

이 책으로 던질 질문

1. 이웃은 담 하나 너머의 사람일까, 마음 가까이의 사람일까?
2. 결혼, 해야 할까? 세대마다 대답은 왜 다를까?

같은 질문, 다른 책

가족, 연인, 이웃.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. 소설이 특히 잘 던지는 질문입니다.

이 질문의 다른 책

백년의 고독 · 맡겨진 소녀 외. 홈페이지 생각의 지도 06에서 모두 볼 수 있어요.

후기 전문과 진행 자료

책마다 홈페이지 책 페이지에 후기 전문, 진행 자료, 그날의 한 줄이 있습니다.

이 질문들,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

주로 토요일 밤 9시, 줌에서 만나고 가끔은 직접 만납니다. 완독 못 해도,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. 첫 참여는 무료, 그다음부터 모임당 5,000원.

espada4897.github.io/espada/map.html#m6